



안전, 다른 이름은 생명입니다

주식회사 두원정공

 이 광 규 대리

노란 꽃봉오리가 살며시 실눈을 뜨기 시작한다. 따사로운 햇볕과 따사로운 바람, 어느덧 싱그러움 봄이 우리 곁에 다가왔다. 하나하나 움츠렸던 만물이 깨어나는 계절, 모든 것이 새롭게 시작될 것만 같은 기대에 마음이 부풀어 오른다. 처음이라는 말처럼 설레게 하는 게 있을까? 61호 자랑스런 안전인, 주식회사 두원정공의 이광규 대리를 만나기 위해 안성으로 향했다.

경기도 안성에 위치한 주식회사 두원정공, 자동차 핵심부품인 연료분사장치를 생산하고 있는 이곳의 안전을 책임지고 있는 이광규 대리. 올해로 34살의 그는 경북 문경에서 태어나 지금은 1남 1녀를 둔 가정의 가장이다. 27살에 대학에서 안전공학을 전공한 후 이곳에 입사하여 어느덧 7년차 안전관리자가 되었다. 실업계 고등학교에서 기계공학을 전공하였는데 당시 기계공작이나 기계실습시간에 잦은 기계결함과 안전 부주의로 인한 사고가 빈번하게 발생하여 친구들이 다치는 모습을 접하게 되면서 '안전'에 대한 중요성을 인식하게 되어 대학에서는 안전공학으로 전공을 바꾸었다고 한다. 졸업 후, 이곳 두원정공의 안전관리자로 입사하면서 안전 업무를 담당하게 되었다. 입사 후 2년여가 지난 2003년 초, 근골격계 질환에 대한 사회적 인식 확산에 따른 산재증가로 많은 어려움이 발생하게 되었다. 당시에는 근골격계 질환에 대한 개념이나 자료조차 미비한 실정, 근로자의 질환 예방을 위한 유해요인 조사와 개선 대책을 세우기 위해 잠을 줄여가며 업무에 매진하였다. 지금 돌아보면 그의 인생에 있어 가장 힘들었던 시간이었지만 고생한 만큼 보람도 컸다며 잠시 그 때의 기억을 떠올린다. 어느덧 세월이 흘러 그 동안의 경험은 그에게 안전에 대한 자부심과 열정을 갖게 하였고, 서슴없이 "아직 일부 회사에서는 안전보다는 생산에 치중하여 근로자의 안전은 뒷전으로 한 채 매출에만 열을 올리고 있는데 이는 작업자가 건강해야 회사도 건강해 질 수 있다는 경영마인드가 부족하기 때문입니다."라고 토로하는 그의 모습에서 베테랑 안전관리자의 모습이 풍겨져 나오는 듯하다. 꼭 이루고 싶은 소망을 물어보자 "안전관리자라면 누구나 무재해 사업장을 만드는 것이 아닐까 합니다. 지속적인 노력으로 꼭 무재해 사업장을 만들고 싶습니다."라는 굳은 의지가 담긴 말에 그의 바람이 꼭 이루어지리라는 확신이 생긴다. 최고의 안전은 작업자 스스로가 안전을 소중하게 생각하여 실천하는 것일 것이다. 모든 근로자가 안전관리자가 되어 '안전지킴이'가 될 때 건강한 사업장, 행복한 가정을 만들 수 있다. 그는 아직 젊고 이루고 싶은 목표가 있고, 그것을 이룰 수 있는 열정이 있다. 올해 그의 바람이 현실이 될 수 있기를 기원해 본다. 

〈임재근 기자〉